

TV 8월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주홍글씨>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KBS광주 열린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살맛나는 세상	40 아침연속극 <여자를 몰라>
30 KBS 뉴스	00 생생 정보통 스페셜 20 아침드라마 <엄마도 예쁘다> 50 여유만만	9 30 기분 좋은 날	20 좋은 아침
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50 TV동화 행복한세상	00 언제나 칭송 55 한글주간 기획 바르민말 고운말 제5편	10 45 MBC 뉴스	40 SBS 뉴스
00 KBS 뉴스 12	00 지구촌 뉴스 20 희망텔레비 일지리 119	11 00 TV속의 TV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특별생방송 2010 좋은학교 박람회	00 KBS 뉴스 10 특별생방송 2010 좋은학교 박람회	12 00 MBC 뉴스와 경제 4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열린TV 시청자세상
00 제9회 전국체육대회 <진주/경남일원>	00 KBS 뉴스타임 05 유후와 친구들(재) 35 후두스 잃어버린 숲(재)	1 30 한글날주간 특별생방송 <소통, 한글로 통하다>	30 한국의 숲
00 KBS 오늘의 경제 10 제9회 전국체육대회 <진주/경남일원>	00 TV유리 30 누가 누가 잘하니	2 40 2010 울산 세계문화엑스포 개막특집공연	00 SBS뉴스 10 인문학 열전
00 KBS 뉴스5 15 생생 3월!	15 태극 천지문(재) 45 KBS 뉴스타임 50 유익뱅크	3 00 우리아이 미래발전 재능 무한대 30 TV방송 꾸러기 식사교실	00 HD다큐멘터리 생명의 비밀
6시 내고향 특별생방송 <고향을 응원합니다>	00 KBS 뉴스 10 특별생방송 2010 좋은학교 박람회	4 00 MBC 뉴스 20 예술산책 중인 생방송 전국시대	00 SBS 뉴스프리미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네모트
00 KBS 뉴스네트워크 30 시사터치 오늘 55 휴먼TV 사노리엔	10 생생 정보통	5 30 MBC 뉴스 50 남도에 살고 싶네	15 생방송! KBC 투데이 55 시사인터뷰 후
25 일일연속극 <웃어라 동해아>	35 KBS 뉴스타임 - 광주전남 50 스프링 0	6 45 일일시트콤 <불수룩 애교만점>	15 일일드라마 <세지매>
30 KBS 뉴스 9	50 KBS 뉴스타임 55 VJ 광대	7 15 일일연속극 <황금동고기>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HD다큐시리즈
00 소비자 고발 50 세계는 지금		8 45 MBC 스포츠 뉴스 55 창사특집 다큐 <왕인>	10 HD테마다큐 <세계문화 대탐험> 55 KBC 특집다큐 <신해양 관광부국 1~2부>
00 KBS 뉴스라인 30 미디어 버라이어	05 청춘플래	9 55 MBC 스페셜 <타블로 그리고 대한민국 온라인>	
00 경음이 있는 여행 30 KBS 뉴스 40 앙코르 TV문학관 <노래여 마지않노래여>	15 스포츠하이라이트 35 유익의 열 스케치북	10 40 MBC 뉴스 24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0 MBC 주말의 영화 <사랑방 선수와 어머니>	05 TV 백과사전 15 전담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개최특집 <스피드의 스포츠 F1 그랑프리> 1:15 한국의 숲 45 나이트라인 2:00 녹색경감

국가브랜드 '한글' 현재와 미래 조명

MBC, 한글날 특집 다큐 '우리말 날들이' 8일 방영

IT강국, 세계 경제 규모 15위, G20 개최국가... 한국의 이미지를 설명하는 이 같은 말들은 사실 해외에서가 아니라 국내에서 더 친숙한 듯하다. 외국인들에게 여전히 한국하면 떠오르는 말은 분단국가라는 것이며, 국가 브랜드 지수는 세계 50개국 중 33위를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브랜드로서의 한국은 아직 부족한 게 많다. 짧은 시간에 이룬 눈부신 경제발전에도 비해 한국의 이미지는 여전히 '동방의 작은 나라'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MBC가 한글날인 9일 오전 8시45분 방송하는 다큐멘터리 '한글, 날아오르다'(내레이션 최유영)는 이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없는 상황에서 한글이 한국의 얼굴로서 갖는 가능성을 조명한다. 제작진은 500년 전 세종대왕이 훈 시골로, 세계 최초의 IT 발명품으로 일컬어지기도 하는 한글이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제작진이 한글의 매력을 탐고자 먼저 만난 사람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 대사다. 국가 브랜드

향상에서 한글이 갖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는 그녀는 "매일 아침, 모닝 커피보다 한글 수업을 더 먼저 챙긴다"며 한글 사랑을 감추지 않는다. 제작진은 이외에도 톨랜드 데이비스 영국 문화원장,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세계적인 모델 한혜진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비롯해 문화계와 경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들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브랜드로서 한글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은 MBC 아나운서국이 직접 제작을 맡아 주목받고 있다. 아나운서국은 2001년 이후 매년 한글날마다 한글과 관련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다. MBC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0일까지를 '아름다운 우리말 주간'으로 선정하고 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리말 날들이'는 '아름다운 우리말'이라는 부제를 달고 매일 특집 방송되고 있으며 8일 낮 1시30분에는 생방송 '소통, 한글로 통하다'도 내보낸다. /연합뉴스

팜페라테너 임형주

조영수와 손잡고 신곡 발표



팜페라 테너 임형주 (24)가 처음으로 대중 음악 작곡가인 조영수 (34)와 손잡고 7일 신곡을 발표했다. 임형주가 부른 '천년을 하루같이'는 조영수가 작곡하고 강은경이 작사한 곡으로,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에 중국 전통 악기 일후와 한국 전통악기 대금 연주가 가미됐다. 일후 연주자 1세대인 김지은과 임형주가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코리아 포스트 챔버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이 곡은 오는 14일 개봉하는 정우성, 양조춘(楊紫瓊) 주연의 영화 '겨우꼬'의 공식 이미지 음반 타이틀곡으로 제작됐다. 영화의 명장면을 편집한 뮤직비디오도 함께 공개됐다. /연합뉴스

제19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배기부대전

맛이 나쁜 마늘모
4회전 2국 4보 (64~80)

白 조시균 5단 (빛고리교사회)
黑 조영매 5단 (주백관리사회)

흑 ▲는 흔히 쓰이는 응수타진으로 백이 물러서주면 이득이고 실전처럼 백 64로 잡으면 등이 두터워진다. 그런데 가벼운 마음으로 던진 탓인지 예기치 않은 실수가 터져 나온다. 흑 67이 경솔한 수로 이 수로는 69에 먼저 막아야 했다. 조시균 5단이 무심코 백 68로 받아주었기에 망정이지 이 수로 '참고도1'의 백 1로 선수를 한 다음 3으로 늘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했다. 백 72로 압박한 것은 당연하며 흑도 즉각73으로 침입하여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된다. 조시균 5단은 '가'로 불리는 수를 방지하려고 백 76으로 두었는데 이 수로는 '참고도2'의 백 1을 선수해두고 7까지 틀어막는 것이 깨졌었다. 백 80까지 혼전의 양상이다.

조영매 5단
<본보 비독해설위원>

EBS			
06:00 세계테마기행+	10:00 EBS 10시 뉴스	15:30 당동명 유지원(재)	20:30 EBS 뉴스
06:40 한국기행 <고흥>	10:10 60분-부도	15:50 달라라 카카	20:45 지식채널 e
07:00 요리비전	11:10 최고의 요리비결 <정신우의 가을맛이 제철밥상>	16:00 치료의 친구들	20:50 세계테마기행 +
07:30 당동명 신나는 아침	11:40 교육초대석 <건축사화>	16:15 우당탕탕 아이쿠(재)	21:30 한국기행
07:35 리틀 인스타인	12:30 최고의 교사	16:25 우리는 지금 구조대	21:50 영의 <서울대 마취통증의학과 이상철 교수>
08:00 당동명 유지원	13:00 TV 평생대학 <남경태의 세계사 흐름 읽기>	16:35 방귀대장 뽕뽕(재)	22:40 희망풍경 <노총각 진목씨의 결혼 일정기>
08:20 우당탕탕 아이쿠	13:50 희망풍경	16:50 헬로 코요태	23:10 시네마리극
08:30 방귀대장 뽕뽕이	14:20 교육다큐멘터리 <영아테마독해(2)>(재)	17:00 울리야(재)	00:00 지식채널 e(재)
08:45 방귀대장 뽕뽕이	15:00 교육다큐멘터리 <영문법 즐겨찾기>	17:15 워드 월드	00:05 공부의 왕도
09:00 울리야	15:05 두근두근 우리들 세상	17:40 리틀 인스타인(재)	00:35 지식채널 e 위클리
09:15 최척폭폭 처킹턴	15:05 메이저	18:05 생방송 특!특! 보나하니	00:45 EBS스페이스 공감<공감>
09:25 고민있어요! 하나아줌마		19:05 크로스 게임	
09:30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19:30 EBS 로켓파워	
09:35 EBS 수능특강 외국어영역		20:00 최고의 교	

국모닝 잉글리쉬	오하오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p>John was fired from his job yesterday 존이 어제 직장에서 해고 당했대네요</p> <p>A : John was fired from his job yesterday. B : That's terrible! How is he taking it? A : Fairly well actually. There was a lot of negative stuff going on. I think he's glad to be out of there. B : I hope so. I expect he'll find a new position quickly.</p> <p>A : 존이 어제 직장에서 해고 당했대네요. B : 저런! 어떻게 그런 조치를 받았대요? A : 실은, 아주 잘 된거죠. 너무 많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가까이 그곳에서 그만 두었을 것 같아요. B : 그랬으면 좋겠네요. 빨리 새로운 직장을 찾기를 바랍니다.</p> <p>* be fired = 해고되다 * negative stuff = 부정적인 요소 * 매리는 그 일을 처리하기로 하고 1500불을 받았대네요. = Mary was paid \$1500 to do the job.</p>	<p>どろぼうが入ったかも知れません。 도둑이 들어 왔는지 모릅니다</p> <p>A : 変だな。鍵を閉めて出たはずですが、空いていますよ。 B : 泥棒が入ったかも知れません。調べてみましょう。 A : しかし、無くなったものは何もありませんよ。 B : では、鍵を掛けるのを忘れて出たかも知れません。</p> <p>A : 이상하군. 문을 잠그고 나갔을 터인데 열려있어요. B : 도둑이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조사해 봅시다. A : 하지만 없어진 물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B : 그럼 열쇠를 채우는 것을 잊고 나갔을지도 모릅니다.</p> <p>【문법정리】 ○ 품사 기본형+かもしれません(할지도 모릅니다) ▶ 彼は疲れていますから、今日来ないかも知れません。(그는 피곤해 있으니깐 오늘 오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 彼女は欠席した。病氣かも知れません。(그녀는 결석했다. 병에 걸렸을 지도 모른다)</p>	<p>长得对不起大家 못생겨서 죄송합니다</p> <p>A : 他人缘好, 性格不错, 只是... lǎ rén yuán hǎo, xìng gé bù cuò, zhǐ shì... (타 인연 좋, 성격 나쁘, 조스...) B : 只是什么? zhǐ shì shén me (조스 선미) A : 只是长得有点对不起大家。 zhǐ shì zhǎng de yǒu diǎn bù qǐ dà jiā (조스 장 더 요우디안 타이 투에부지 따피야) B : 这就是他的优点嘛。 zhè jiù shì tā de yōu diǎn ma (찌 피우쓰 타 더 요우디엔 마) A : 그 사람은 인관관계도 좋고, 성격도 좋은데, 다만... B : 그런데? A : 그런데 인관적으로 너무 못생겼어. B :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장점이잖아.</p> <p>◆ 새로운 단어 (生词) 人缘 (rényuán) 인관 관계 优点 (yōudiǎn) 장점</p>	<p>迷途知返(미도지반) 미혹함 미, 길 도, 알 지, 돌아갈 반</p> <p>미도지반(迷途知返)은 길을 잘못 들었으나 돌아갈 줄 안다는 뜻으로, 잘못을 깨닫고 고치려고 결심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p> <p>남북조시대에 남제(南齊)의 강주(疆州) 자사(刺史)를 지낸 진백지는 남제가 양(梁)나라에 멸망하자 북조(北朝)로 도망하여 북위(北魏)의 평남장군(平南將軍)이 되었다. 양나라의 무제(武帝)는 동생인 임천왕(臨川王)에게 북벌(北伐)을 명하였는데, 임천왕은 군사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비서 구지(丘遲)를 불러서 진백지에게 항복을 권고하는 편지를 쓰도록 하였다. "길을 잃어 뒤돌아볼 줄 아는 것은 성현들의 뜻이고, 길을 잘못 들어서도 멀리 가기 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영웅전에서 높이 여긴다." 진백지는 이 구지가 지친 편지를 읽고 나서 감동하여 양나라에 저항하지 않고 군대를 철수하였다고 한다.</p> <p>[출전] 『남사(南史)』 <진백지전(陳伯之傳)> ※ 급수 : 한자능력검정 3급, 3급, 5급, 3급</p>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882	<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